

## 12. 과학혁명과 종교.

과학 혁명기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을 자유롭고 진보적인 과학과 보수적이고 경직된 종교의 관계로 단순하게 볼 수 없음.

### [갈릴레오 종교재판]

- 천체 관측 → 아리스토텔레스 - 프톨레마이오스 우주 구조와 배치되는 사실 발견
-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구조를 강력히 옹호 → 카톨릭 교회 당국의 불안
- . 조화된 우주구조(지구가 중심, 가장 바깥에 신이 살음) : 기독교 교리 흔들림.
- 1616년 코페르니쿠스 우주 구조에 대한 금지령.(카톨릭 교리에 위배)
- 갈릴레오 :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구조 반박,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 반론 반박(금지령 어기지 않으면서 반박)

### [ ㉠가지 주된 우주구조들에 관한 대화 ㉡]

- 1623년 새교황 우르바누스 8세 즉위(학식이 높고, 진보적이고, 이해심 많고, 과학에 조예가 깊고...)
- 갈릴레오에게 우주구조의 체계에 대한 장단점 파악 후 책 저작토록 허락
- 교황의 의도에 대한 갈릴레오의 착각(교황의 의도는 충분히 고찰 후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줄려고...)
- ㉠가지 주된 우주구조들에 관한 대화 ㉡출판(1630)
- 서문: 참된 진리는 신만이 아는 것, 우주 구조는 모두 가상적인 것...교회 당국의 원고 검열 통과
- 심플리치오(아리스토텔레스 주장 대표), 살비아티(코페르니쿠스 주장 대표), 사그레도(중립)
- 살비아티의 명쾌한 주장, 심플리치오의 바보스런 반박, 사그레도의 살비아티 입장 가세
- 책의 주장: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가 옳고,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구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음

### [교회 당국의 반응]

- 갈릴레오에게 우롱당했다고 생각, 우롱당하는 심플리치오는 교황이라는 풍문
- 교회 측의 분노
- 갈릴레오 재판 (1632년) : 교회에 대해 행한 서약("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 옹호 안 하겠다") 위반.
- 유죄판결, 참회의 뜻 발표, 감형(가택연금), 역학의 연구와 집필에 전념

## [갈릴레오 종교재판의 성격]

- 가톨릭 교회 : 종교개혁의 진행 상황에서 신학적 배경의 약화를 방치할 수 없었음.
  - 교황의 우롱 당함.
  - 갈릴레오 : 낙관적인 성격과 순진한 면, 가톨릭 신앙에 대한 자신감(우주에 대한 참된 지식)
  - 교회당국의 착각(과학이론의 발전을 억누를 수 있다는..)
- ⇒ 관련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교회를 에워싼 정치적 상황이 얽힌 여러 측면을 가진 인간관계의 복잡한 사건.